

# 배 가격, 예년비 1만원 ↑ 비싸...추석 차례상 근심

### 배 15kg당 1만565원 오른 4만8243원...사과는 10개당 3349원 올라



폭염과 태풍 영향으로 사과와 배 가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뛰 것으로 나타나 추석 차례상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다음 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도매 기준 사과(홍로) 가격은 10개당 2만5781원으로 예년(2만3243원)에 비해 3349원

더 올랐고 배(신고) 가격은 15kg당 4만8243원으로 예년(3만7678원)보다 1만565원 상승했다.

도매가격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지난주부터 햇상품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든 점이 위안이다.

현재 사과 10개 가격은 고점을 찍은 지난 6일(2만6733원)보다 952원

(3.0%) 하락했고, 배 15kg당 가격은 지난 4일(5만2597원)과 비교해 4354원(8.3%)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급안정 물량이 공급되고 할인판매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고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주에도 사과와 배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출하물량이 전주보다 크게 늘면서 소매가격까지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는 "고가의 특품 사과는 전체 생산량의 1%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수연 총주농협 상무는 "현장과 다르게 사과 값이 크게 올랐다는 인식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꺼려하는 현상이 일어나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우석 예년농원 대표는 "올해 모양이 예쁘지 않고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폭염 태풍을 견뎌 당도가 높고 맛있는 과일을 많이 소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주택담보대출, 이제 못 받나요?”...은행권 문의 줄이어

### 정부, 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대출 아예 금지



14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은행 창구에는 관련 문의가 줄어갔다.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전면 시행한다. 2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 보유자는 이자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까지 올라간다.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에 다주택자나 대출 수요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와 임대사업자 대출금이 기존보다 얼마나 줄어든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규제지역 중에서도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된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중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처분해야 할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하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것인지, 서둘러 등락을 헤아리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 방안에 맞춰 내부 심사규정을 변경하고 이날 신청이 이뤄진 대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1주택자의 추가 대출 취급 이후 2년 내 기존주택 처리 여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유용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해서도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번 조치로 확실히 대출 수요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전부터 공언해왔기 때문에 실수요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가 사실상 대출로 돈을 빌리는 신호여서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전남 햅쌀 '조명1호' 흡소핑방송서 '대박'



전남 햅쌀 '조명1호'가 흡소핑 방송 판매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16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영흡소핑을 통해 방송한 영광군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강선중)의 전남햅쌀(품종명 '조명1호')이 성공적으로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흡소핑 방송 판매가 가장 어려

운 시간대인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까지 50분간 방송에서 당초 목표대비 180% 이상인 18375t(10kg 2포)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1억5000만원 규모다.

'조명1호'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석전 햅쌀용 시장을 겨냥해 고시히끼리와 온누리리를 교배해 생산력 지역적응성 검정을 거친 후 품

종등록을 완료했다.

밭맛이 양호하고 벼흰잎마름병 및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 높은 조생종 벼이다.

전남농협과 전남도가 함께 기획 방송하고 있는 전남브랜드쌀 릴레이 방송은 이번이 3회차다.

구매 층은 경기(24%)·서울(22%)·부산(12%)·인천·경남(8%), 연령대는 60대(33%)·50대(30%)·40대(13%)이며, 지난 2번의 방송에 비해 부산 및 경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방송을 기획한 공영흡소핑 원상연과장은 "방송 판매시간이 어려운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량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풍광수도를 비롯한 전남쌀 릴레이 방송이 수도권 소비자를 중심으로 방송과 온오프라인 판매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서은홍 기자

## 참여연대 등 “부동산대책, 서민·세입자 주거대책 빠져”

### 세제 강화, 세입자들에 전가 가능성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빠져 있고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킨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주택을 살

어려움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내 공공활성화 방안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 지역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OTTO 제 824회차 당첨결과 (2018년 9월 15일 추첨)

7 9 24 29 34 38 + 26

| 순위 | 당첨개입수     | 1인당 당첨금액       | 당첨기준                    |
|----|-----------|----------------|-------------------------|
| 1등 | 15        | 1,256,646,550원 |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
| 2등 | 51        | 61,600,322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
| 3등 | 2,106     | 1,491,746원     |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 4등 | 105,359   | 50,000원        |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
| 5등 | 1,745,566 | 5,000원         |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

당첨금 지급기간: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추월인 경우 약정업일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